

보살의 길

2008년 여름호 제 34호



5월 8일 어버이날 행사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혜명불교양로원

행복한 마음을 전염하세요!



홍순의 생활지도원

무더운 날씨가 나의 몸을 열로 뒤덮습니다.
그래도 우리어르신들은 늘 건강한 삶과 노년의
청춘을 즐기시라고 어느 책에 나온 내용을 전합니다.
이시와 같이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이를 용
기와 의지가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을 체
념하고 마음이 좀 더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어르신들도 한방 식구와 재미있고 즐겁게
생활 하시고 혹여나 옆에 계신분이 부족한 면이
있으시면 서로 도와 주시며 남은 여생을 평안
하게 행복하게 보내세요.
작은것에 행복을 느끼며 그 행복에 우리 모두가 전
염되어 행복한 해명양로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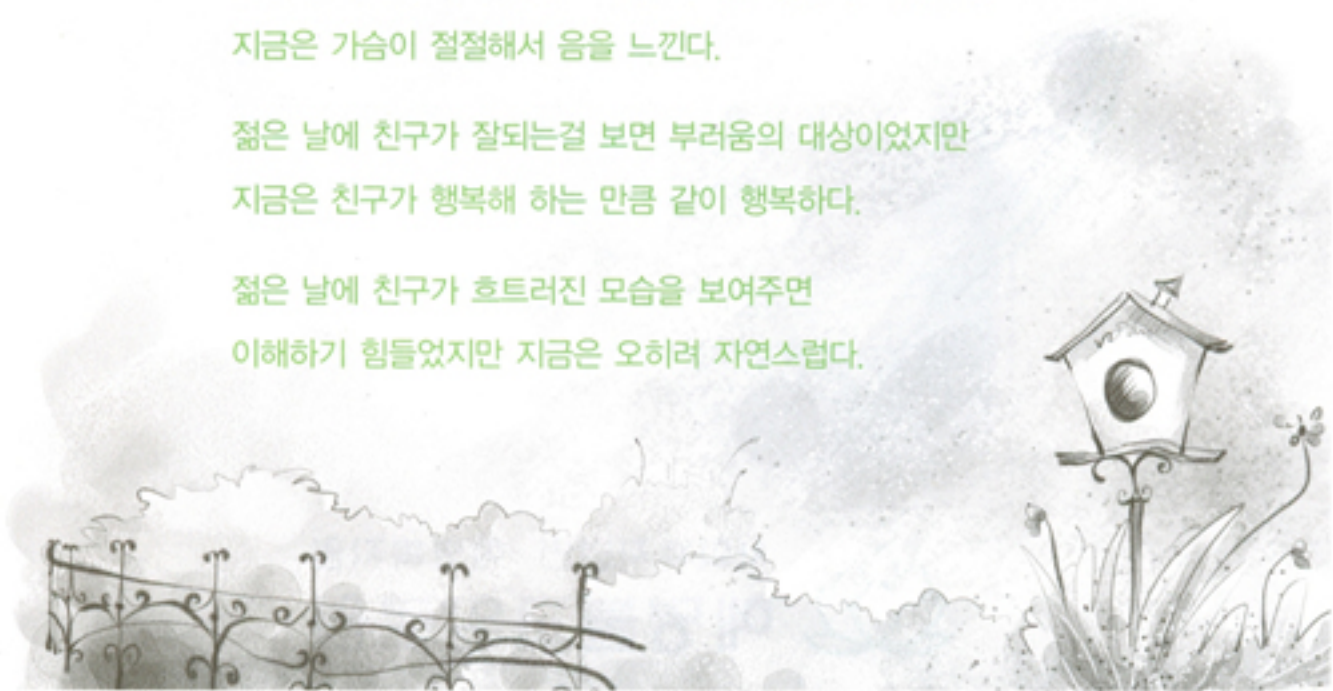
나이가 가져다 준 선물

젊은 날이 받은 선물은 그냥 고맙게 받았지만
지금은 뜨거운 가슴으로 받는다.

젊은 날의 친구의 푸념은 소화해 내기가 부담이 되었지만
지금은 가슴이 절절해서 음을 느낀다.

젊은 날에 친구가 잘되는걸 보면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친구가 행복해 하는 만큼 같이 행복하다.

젊은 날에 친구가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주면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자연스럽다.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께..

김도연
(재미있는 이야기 시간 자원봉사자)



“그말이 참말이냐”

시 외할머니께서는 당신이 좋다는 나의 말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가만히 할머니의 눈을 들여다 보며 손을 꼬옥 잡고 정말이라고 말씀드리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구십이 넘으셨는데도 발걸음이 가벼우셔서 나비같이 춤을 추실 줄 알았고 삶의 지혜를 들려 주시던 총명하신 분이셨습니다.

“니가 참말 내 손녀딸이냐”

치매에 걸리신 친정할머니의 기저귀를 갈아 드리며 친 손녀딸이라고 하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새벽이면 일어나 동백기름을 곱게 바르고 기도를 드리고 명절이면 커다란 가마솥에서 과자를 만드시던 솜씨 좋은 분이셨습니다.

이제는 두 분다 하늘의 부름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들께서는 추위에 약한 저에게 덧버선을 하나씩 남기셨습니다.

늦가을부터 초봄까지 싸늘한 작은 발을 보호해 주는 버선은 지금도 서랍장 귀퉁이게 접혀 있고 두 분이 준 사랑의 추억을 제 가슴에 고이접혀 있습니다. 이곳 혜명양로원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은 저의 할머니이고 할아버지이십니다.

마주 잡은 손길에서 따스한 정이 흐르고 마주보는 눈길에서는 사랑이 피어납니다.

혜명에서 고이 접은 추억을 꺼내어 오늘을 살고 내일을 꿈꾸는 저는 손녀딸입니다.

한글봉사

3개월을 돌아보며...



이 정 순 (한글자원봉사자)



여자이기 때문에 학교를 보내지 않았던 '여성근대사'의 아픈 역사의식을 마음속 깊이 느끼며 지나간 역사의 어두운 부분이지만 지난 그 시대에 팽배해 있던 가치관에 다시한번 가슴아픔을 느끼며 시작한 봉사활동이었다.

소박한 할머니들의 모습, 지난 세월을 반추하면서 외롭고 힘들어하시는 모습들을 보며, 어르신들의 눈을 깨우쳐 드리고 싶었다. 계몽소설인 심 훈의 '상록수'에 나오는 영신의 모습을 수없이 떠올리면서...

수업을 시작하면서 때로는 할머니들의 표정도 살펴야 했고, 나름대로 할머니들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될 것 같아 '나는 할머니의 딸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할머니들께 접근했다. 때로는 응석도 부리고, 뻔한 것도 모르는 척 할머니들께 여쭙기도 하고 ... 외로운 할머니들의 말벗이 되어 주어야 했다

할머니들께서는 이런 나에게 쉽게 다가오셨다. 먼저 자리에 앉아서 수업준비도 하고 한글 한 자 한 자 눈을 떼지 않으셨다. 수업이 끝날 때 쯤 되면 아쉬운 듯한 표정을 지으시며 "다음 주에도 꼭 와야 해" 하시며 내 손을 꼭 잡아주신다. 마디가 거친 손이지만 너무나 따스한 정감을 느꼈다. 이럴 땐 눈물이 핑 돌기도 했다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르신들과 시간을 같이 하는 동안 진한 어머니의 체취를 체험하였다.

함께 봉사해주신 선생님들(소미숙, 이은순, 고병님, 한종임, 전선순)께 감사드립니다.

혜명한마당



| 영양교육 |

금천구 보건소에서 3회에 걸쳐 어르신들에게 식생활교육을 했습니다. 당뇨나 고혈압에 관계없이 당신의 기호대로 식생활을 하시던 분들은 이번교육을 통해 건강과 식생활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맛돌체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질병예방의 일환으로 순회체조를 실시하고 있어 우리양로원에소도 3개월 동안 맛돌체조를 했습니다. 어르신 기호에 맞게 잘 짜여진 체조시간은 늘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 시설개방행사 |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엔 지역의 독거노인들이 양로원에 모여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시설을 홍보하여 양로원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고 쉽게 드나드는 지역사회의 한 기관으로 자리 잡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 시설운영위원회의 |

6월 19일 시설운영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07년 예산보고와 실적보고 08년 사업계획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알찬시간이었습니다.



| 상반기 나들이 |

5월 16일 아쿠아랜드와 중남이 문화원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상·하반기로 진행되는 나들이는 건강한 분들과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나눠 불편 없이 관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곳 많이 모시고 다닐 수 있도록 모두 건강하세요.



| 어버이날 행사 |

5월8일 지역사회노인들과 함께 "제 2회 어버이날 어르신들 마당" 행사를 했습니다. 예쁜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드리는 것을 시작으로 맛있는 음식과 풍악으로 즐거운 오후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슴에 달고 있는 꽃보다 어르신들의 환한 웃음꽃이 더욱 빛나는 시간이었습니다.



| 자원봉사교육 |

4월11일 자원봉사 교육이 있었습니다. 서울사회복지사회회 지원을 받아 진행된 교육은 자원봉사자들에게 봉사에 대한 마인드를 재정립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뮤지컬 관람 |

사랑티켓 후원으로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 공연을 어르신과 관람했습니다. 공주에 대한 난장이의 애듯한 사랑이 어르신들의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는 공연이었습니다.



| 서울역사박물관관람 |

작년에 이어 서울역사박물관 관람을 다녀왔습니다. 봄의 정취가 어우러진 박물관은 가이드의 재미있는 설명에 우리 역사에 푹 빠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혜명동정

●●● 시설개요

- 시설명 : 혜명양로원
- 운영재단 : 대한불교 조계종 도선사
- 개원일 : 1982년 4월 10일
- 설립자 겸 시설장 : 박 재 근 (현성큰스님)
- 정원 : 64명 (남 : 28명 / 여 : 36명)
- 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시흥2동 241-7

●●● 입소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수급자 증명서 1통
- 보건소 건강진단서 1통
- 증명사진 5장
- 우리은행통장
- 주민등록증 · 도장

●●● 입소대상

- 무료입소
- 입소대상 :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입소신청 : 거주지동사무소(상담 및 신청)
관할구청(심사 및 의뢰)
금천구청(심사 및 의뢰)
양로원(상담 및 입소결정)

●●● 현재 입소인원 (6월 30일 현재)

- 현원 : 61명 (할아버지 : 26명 / 할 머 니 : 35명)

●●● 직 원 현 황

- 총 16명
원장1명 / 사무국장 1명 / 시설과장 1명 / 간호사 1명/
영양사 1명 / 사회복지사 1명 / 생활지도원 5명 /
위생원 1명 / 서무 1명 / 조리원 3명

●●● 2008년 상반기 후원금 수입·지출내역(2008년 1월~6월)

수 입		지 출	
후원금종류	금 액	지출내역	금 액
지역사회 후 원 금	12,488,510	사 무 비	5,004,396
		사 업 비	13,959,160
		프로그램 사 업 비	806,640
합 계	12,488,510	합 계	19,770,196

자원봉사자

2008년 4월 1일~ 6월 30일

동국대한방병원, 이승희·강은향, 박은주, 이정순, 민경숙, 윤숙녀, 소미숙, 고병님, 최윤금(밀그림색칠), 문덕녀, 홍순자, 박상화(대림미용실), 이푸름, 김병호(영등포교도소이발), 금천문화원무용반임호순외6명(치과진료), 김미경(종이접기), 금천보건소, 윤순재(사랑의모임국악팀), 조규용, 고병득, 윤소원, 조맹영, 김용기(그신대침술봉사팀), 조기환(물리치료), 임지현(건강체조), 백련사신도님들, 천종임(경기민요), 김하늘(차밍댄스), 묵향법사, 지영옥, 김상영, 묵향, 신세왕, 최미자, 이순교, 김덕문, 정지윤, 황득효, 지오스님(찬불가봉사팀), 홍은석, 황숙희, 김영희, 선재심, 윤명심, 손정숙, 배현순, 장소순, 이호경, 전별문, 최정혜, 최현임, 마정임(반야회1기), 이현옥, 배규인, 장소영, 한봉옥, 이선영, 한미정, 이영옥, 최금옥, 임은영, 안영미, 지춘재(반야회3기), 박미란(말벗), 한은옥, 한정옥, 남미영, 최소희, 고영수, 전초이, 안성수(우담바라), 김도연(이야기시간), 홍덕신, 채명훈, 장진하, 위진영, 신수진, 김도진, 강선권, 송한별, 송예술, 박가현, 박지현, 김혜미, 권지현, 유재윤, 신수정, 신수진, 홍은지, 권지연, 박윤미, 이원근(금강정사학생회), 이정순, 고병님, 전선순, 소미숙, 한종님(한글교실), 조청길, 임영희, 안현숙, 장미숙(수자침), 금천세무서, 하정자, 이경화, 오유리, 박미자, 김순자, 문현옥, 권태숙, 김진화, 천명두, 박애하, 마경숙, 정금경(반야회 4기)

후원자

* 혹시 소식지에 기재되지 않으신 후원자님께서서는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물품후원

금천푸드뱅크, 인천보살님, 연세통증의학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박정태, 탑동초등학교14회졸업생, 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윤숙현, 백련사, 이윤분, 박재근, 박훈심, 혜명회(찬불가), 입소자지인, 국승우, 박월서, 우리은행시흥지점, 문백초등학교6-6반, 이재임,
김이환·신영숙부부(어버이날 찰시루떡 한말 / 부처님오신날 찰시루떡 한말),
도선사주지 혜자스님 어르신께 대중공양

지로후원

윤재순 60,000	문금자 30,000	구봉순 30,000	이정호 5,000	서현종 50,000	이애자 20,000
구충수 150,000	백승풍 20,000	이재임 5,000	임옥수 150,000	은선사 20,000	김혜광 20,000
박영옥 10,000	박세진 10,000	박 건 5,000	박정혁 5,000	이장원 10,000	

현금후원

한진택 300,000	김평소 360,000	독지가 60,000	이복자 20,000	박혜정 30,000
양보금 30,000	반야행 100,000	조성한 40,000	유규동 30,000	김선금 100,000
박성수 90,000	최형기 30,000	권기상 150,000	마희전 80,000	서권순 100,000
전정자 10,000	한순문 10,000	진승준 30,000	이순자 60,000	정호기 60,000
최소영 35,000	정준영 200,000	유춘화 300,000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67,500	
한태규 50,000	증권선물거래소 1,000,000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자원봉사자모집

- ▶ 모집대상 : 개인 및 단체 누구나
- ▶ 모집내용 : 노력봉사 - 어르신 숙소 청소, 목욕, 식당보조
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 치매예방·여가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의료봉사 - 의료 관련 서비스 실시
정서지원봉사 - 말벗, 책 읽어드리기, 무연고 어르신 결연

후원자모집

- ▶ 후원내용 : 현금후원 - 일반후원 1,000원 이상, 결연후원 5,000원 이상
물품후원 - 생활에 필요한 의류, 생활용품, 쌀 등
식품후원 - 어르신들 입맛에 맞는 신선한 반찬류 및 간식류(과일, 빵 등)
가전후원 - 대형텔레비전, 김치냉장고, 재봉틀, 카세트 등
생필품후원 - 락스, 피죤, 옥시크린, 각종 세제 류

정성을 기다리는 후원금 계좌번호

- ① 지로번호 : 7655940
- ① 우리은행 : 1005-901-011284
- ① 예금주 : 혜명양로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에게 드리는 혜택

1. 혜명양로원의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혜명양로원의 모든 간행물을 받아 볼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 정산 시 비용인정 및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로원 오시는 길



- 지하철 1호선: 시흥역마을버스금천01번 범일운수 종점 하차
-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역 5617번 종점 하차
신림역 5413번 종점 하차

양로원 홈페이지

www.hmtown.co.kr

발행처 :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혜명양로원

발행인 : 박 재 근(현성 큰스님)

주 소 : 서울시 금천구 시흥2동 241-7번지

연락처 : TEL 02)802-6765

FAX 02)892-2068